

그것에 의해 제도될 수 없으며 그것도 상관하러 오지 않는다. 그러자 반대로 되어 사람이 종교 중에서 자격과 경력을 뺏내며 자신을 추켜올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신봉하게 하고 그를 공양하게 한다. 그는 명(名)을 구하고 이(利)를 구하며 심지어 정객(政客)이 되어 버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고개를 돌려보라. 이 종교는 아직도 정교인가? 나는 불(佛)·도(道)·신(神)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종교를 말하고 있다. 종교는 사람이 인정한 것이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신은 오히려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사람 마음만 인정한다. 당신의 목적은 비록 부처의 세계로 가고 예수의 세계로 가려는 것이지만 당신이 한 일은 도리어 그렇지 않다. 종교 전반이 모두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그것의 가르침이 바른 것인가?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준 당신이 시간을 놓쳐 잘못될까 걱정되어서이다. 사람을 제도할 수 없는 그 종교에 의해 잘못될까 봐서다.

나는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이 회의에 참가하러 왔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다.

방금 내가 수련생들의 발언을 들을 때, 우리 어떤 사람들

法輪大法

北美首屆法會講法

북미제1기법회설법

李 洪 志

수련생 하나가 더 많아지면 나의 이쪽에는 곧 어려움도 한 몫 더 많아진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제도하려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제도할 수 있으면 곧 그만큼 제도하며, 되도록 더 많이 제도하려 한다. 당신들에게 간단한 예를 들겠다. 내가 당신을 제도하려할 때, 당신은 마침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 그 종교는 과거에는 아주 바른 것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며 일종 정치형식으로 되었다. 그럼 당신을 제도하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은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데, 이러면 곧 그 종교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때문에 그것은 곧 방해를 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며 심지어 여러 면에서 나쁜 짓을 한다. 이것은 간단한 예를 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 말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의 대법제자로서 과거의 많은 종교를 우리가 그것이 사(邪)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를 포함하여 또 일부 교가 있다. 나는 그것들이 역사상에서 정교(正敎)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의 이 역사 시기, 오늘 현대화한 사람의 관념을 가진 사회 중에서 사람들은 이미 사람의 본질과 고래의 관념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당신의 관념과 그것의 원래 뜻은 이미 어긋났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당신도 곧

그런 복잡한 관념은 부동(不同)한 층차의 하늘, 부동(不同)한 세계, 부동(不同)한 경지의 그런 일들과 연관된다. 오늘날 우리 중국에 한마디 말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파평(擺平)”이라고 한다.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공평하게 처리하겠는가.

모두 사람을 제도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비로소 그를 제도하여 올라오게 할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대단히 어렵다. 나는 방금 말했다. 각자(覺者)는 모두 자신의 사람을 찾아서 제도한다고. 그는 관계하지 않으며, 되도록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가 일단 연관되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제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괴로워진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매우 복잡하여 좋고 나쁜 관념은 일정한 층차에서 모두 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이런 좋고 나쁜 관념이 없다. 당신이 그의 것을 건드렸을 때 당신은 아마 그의 많고 많은 것에 연관될 것이며 그의 세계는 모두 변이가 발생하여 어떠어떠하다고 할 것인데,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가? 당신은 책임지지 못한다. 당신이 억지로 하면 당신은 곧 나쁜 짓을 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사람을 제도한다 하여도 역시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이 일은 하기가 몹시 어렵다. 우리에게 제자 하나가 더 많아지고

北美首屆法會講法

북미제1기법회설법

李 洪 志

(1998년 3월 29일 · 30일, 뉴욕에서)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한마디 더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 개개인이 진정하게 자신의 사상을 주의하기만 하면 순간에 곧 변화하며 일 초 동안에 가히 많은 염두가 변해 나옴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 자신도 이 염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른다. 어떤 것은 상당히 괴이한데 바로 당신이 생생세세에서 갖고 온 부동한 관념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사(私)적인 것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그런 후 천적으로 형성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쁘게 변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만 아래로 떨어질 뿐 다시 위로 승화하지 못한다. 각자(覺者), 불타(佛陀), 신(神)이 와서 사람을 제도하는데, 그들 역시 이런 것을 보았다. 물론 이 안에 또 많고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다. 신(神)인 그도 누구나 다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자신의 사람을 찾아서 제도한다. 나는 또 한 가지 비밀을 계시(揭示)하였다. 오로지 나만이 이 일체 봉폐를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제도한다. 우리 여기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부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를 제도한다고 한다. 사실 많고 많은 것을 당신들은 알 수 없으며 당신들을 제도함이 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영원토록 모두 당신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당신들의

갖고 있기에 이 물질이 곧 아래로 침적한다.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은 모두, 사람의 사상은 매우 복잡하다고 느낀다. 사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사람의 사상은 확실히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나긴 세월을 거쳐 여기로 왔기 때문이다. 기나긴 세월 중 어느 한 층차의 것이든, 그것은 모두 당신들의 생명 중에 보존되어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사람대뇌의 70%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즉 사람의 지혜가 축소되었다. 만약 사람의 지혜를 전부 열어놓아 신(神)과 같은 그런 큰 지혜이면, 인류사회에 있는 당신의 그런 복잡한 사상은 그렇다면 곧 큰 일인즉, 인류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그건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이 문제를 말한다. 나는 말한 김에 또 한마디 하겠다. 지금 인류의 이런 발전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라, 높은 경지 중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탐욕하고, 그는 여전히 위로 발전하려 하는데 이렇게 함은 실제상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사람의 상태를 초월하고,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일체를 초월하였을 때, 인류로 말하면 극히 위험한 것이다. 인류의 지혜가 봉쇄된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큰 지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북미제1기법회설법

李洪志

(1998년 3월 29일 · 30일 뉴욕에서)

나는 이 법회에 참가하러 왔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체험을 들으려 한다. 당시에 이 회의를 여는 것은 내가 주장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 미국대법수련생 교류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함께 서로 교류하는 것이 좋고 시기도 적당하다고 느꼈다. 지난번에 내가 미국에 와서 설법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1년이 되었다. 이 1년의 수련을 통해 여러분은 모두 제고하고 있다. 특히 여러분은 지난번 설법을 들은 후 모두 자신의 제고에 일정한 촉진작용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무리 제고되어어도, 교류하면 그래도 좋은 점이 있고 또한 우리 대법을 더욱 널리 선양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한다.

널리 선전함을 말하자면 지금 한 가지 그릇된 인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부님께서 실속 있게 다그쳐 수련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럼 그는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그는 곧 실속 있게 수련을 다그친다. 물론 속인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속인의 사업과

수련, 이 관계를 여러분은 잘 바로잡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법을 널리 선전하는 것을 당신들이 중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신들은 법을 얻었지만 아직도 법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오늘날 인류사회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슨 뜻인가? 나는 이 법을 전하기 위해 역사의 매우 멀고 먼 연대(年代)에서 이미 배치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큰 하나의 법, 전체 우주의 법을 전하였다. 지난번에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에게 이 우주의 구조를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인식이 있게 되었는데, 원래 우주의 구조는 이러하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바, 내가 지난번에 당신들에게 말한 우주 구조의 개념을 당신은 크기가 그야말로 대단하다고 느낀다. 그 개념, 그것 또한 전체 천체(天體) 가운데서 한 알의 먼지이므로 이 우주,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라. 이렇게 큰 법이 인류사회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쉬울 것인지 당신은 생각해 보라. 우리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 말해 보자. 용광로의 쇠물에 나무꼬투리 하나가 떨어져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것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큰 법으로 당신 한 사람을 받아들여 당신 몸의 업력을 없애주고 당신의 좋지 못한 생각을 없애버리는 등등 등

있었다.

나는 방금 많은 사람이 모두 떠나면 곳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들 서로간의 차이와 특성은 매우 크다. 그렇다면 길고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생명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변하게 되면(하늘의 말로 하면 좋고 나쁨이 없는, 그들이 늘 쓰는 한마디 말, 늘 쓰는 개념으로 말하면, 곧 그것이 무거워지면), 그것은 곧장 아래로 침적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그렇게 순결하지도 가볍지도 않아 뜰 수가 없으면 그것은 곧 침적하고 만다. 실제로 물질에 변이(變異)가 발생해 이미 불순해진 것이다. 그것은 침적하고, 계속해서 침적하는데, 과거의 이런 발전과정이 곧 이런 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느려 사람들 자신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며, 신(神) 자신 역시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월이 아주 느리고 너무 길어서 사람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말하면, 공간이 다르면 시간도 다르다. 그 시간은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서 곧 시계 안에 크고 작은 같지 않은 톱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거의 이러하다. 사실 비교하면 복잡하기 그지없어 억, 조 배로도 모자란다. 사람의 개념으로써는 개괄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은 곧 자신의 주기가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시간이 있다. 이런 동일하지 않은 차이를

(連帶)를 다만 발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대하자. 그렇게 크고 방대한 천체로 확대 발전한 그것은 한낱 한 체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체계 역시 부지기수인지라, 인류의 숫자로는 가늠하지 못한다. 그럼 그런 천체 중에는 모두 동일하지 않은 생명이 있으며 서로 간의 거리는 아주 멀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우주는, 크기를 당신들 사람의 언어로써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형용할 수 없다. 그 생명의 차이는 곧 상당히 크다. 인류는 늘 자신들이 발전시켜온 오늘날의 문명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맨해튼은 그런 빌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는 가장 큰 곳이다. 현재의 이 과학기술 발전을 인류는 역시 득의양양해한다. 회상(回想)해 보고서는 고대인은 그래도 현대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고대인들은 마차를 몰아야 하고 마차를 타야 했으나, 현대인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이 아주 휘황하다고 느낀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은 다른 천체,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다. 인류사회에서 발전한 일체 것은 모두 다른 천체 다른 사회에 있던 것으로서, 사람의 사상 속에 흔적으로, 또는 정보라고도 불리며 남아 있던 것인데, 그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 중에서 다시 가장 거친 인류공간의 물질로 만들어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우주공간 중에는 벌써

등, 그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 이렇게 큰 위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는 속인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련하는 것은 수련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완전히 당신을 버리고 다시 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이 진정하게 수련해야만 비로소 당신 자신이다. 그러나 수련 중에서 많고 많은 心性(心性) 상의 고비가 나타나고, 또 우리 수련생 사이에 대법의 일을 잘하기 위해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일어나는 모순이라든가 등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필연적이다. 다만 당신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만약 어떤 법이 전해 나오에, 만일 그가 시달림(魔難)이 없고 그가 후세사람들에게 남겨놓을 위덕(威德)이 없으면 나는 그것을 사법(邪法)이라고 말한다. 그 무슨 위대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축하할 만한 것이 없으며, 후세사람들에게 남겨놓을 위덕이 없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이러하다. 그럼 내가 전한 이 법을 당신이 얻었고 당신이 수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수련하며 그들이 어떻게 법을 얻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방금 한마디 말을 하였다.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쭐대지 말라. 당신이 법을

언지 못하면, 당신이 수련하여 되돌아가지 못하면 당신은 다만 사람이다. 아마 또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정말로 사람보다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홍법(洪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 문제를 나는 이만큼 말한다.

많은 수련생이 모두 내가 좀 높고 신기한 것을 말했으면 한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원만에 이를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그 어떤 마음도 모두 장애이다. 내가 말한다면, 오늘날의 이 사회의 발전, 그것의 발전과정 전반은 외계인(外星人)의 통제와 추동을 받아 생긴 것이고, 발전한 것이다. 오늘 나는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말한다. 만약 내가 중국 고대의 문화언어로 강의하면 아마 더 투철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관념이 모두 현대인의 관념이기에 지금의 이런 과학지식 방식을 결합하여 말해야 한다. 실은 아주 낮은 것으로서, 그것의 인식은 아주 낮다. 소위 실증과학이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공간에만 국한되는, 단지 우리 삼계(三界) 내의 한 공간 일 뿐이다. 그러나 삼계 내에는 얼마나 되는 층의 물질이 있는가? 많기가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인류는 단지 한 층만 점유했을 뿐이다. 당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이 한 층뿐이며 곧 이런 범위 내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우주는 사람의 사상으로는 영원히 모두 가늠할 수 없다. 왜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한 개 입자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 외에 천체 전반을 구성하는 매개 입자 속에는 그 천체 개개의 존재형식이 있고, 천체 속에는 또 개개 층차의 하늘이 있다. 그것의 매개 입자 속에는 다 동일하지 않은 층차가 있는데, 그것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하면 곧 다른 하늘이며 다른 층의 하늘이다. 그러나 다른 층의 하늘 안에 또 다른 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많기가 부지기수이다.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법할 때, 그 날 여러분에게 말한 그 개념은 말한 것이 이미 대단히 컸다. 내가 말한 것이 몇 층인가? 나는 일찍이 81층을 말했고, 후에 와서 나는 또 당신들에게 천여 층까지 말했는데, 말한 이 범위가 대단히 컸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그 범위가 당신들에게는 크기가 불가사의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사실 그것 역시 극히 작은 것이다. 만약 그것과 멀리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초월해서 돌아본다면 그것 역시 한 알의 우주먼지인 것으로서 이 천체는 이런 정도로 크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바 우리들이 지구에서 발전해 온(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지구를 기초로 한 이런 세계, 이런 연대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우주는 매우 복잡하여 중심에 대한 다른 개념도 있다.

이 우주에는 그렇게 많은 층차가 있다. 예를 들면 대략 30억이 채 안 되는 은하계와 같은 이러한 천체가 한 개 우주범위를 구성(構成)하는데 우리는 보통 소우주라고 한다. 또 이러한 소우주가 약 3천 개 있는데 그들 사이는 모두 상당히 먼 거리다. 우리 일반 사람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다.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도 이 거리는 역시 상당히 멀며 서로 간에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 3천 개의 이러한 우주, 그것의 바깥둘레에는 껍질이 있어 제2층 우주를 구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추리해 가면 제2층 우주의 바깥에 또 이렇게 큰 우주 3천 개가 제3층 우주를 구성한다. 이 수(數)의 개념은 대단히 크다. 만약 쌀 한 알로 한 우주를 대표한다면 그것의 배수는 상당히 크게 확대된다. 그럼 3천 개 쌀알이 이미 책상만큼 커지는데, 심지어 이것보다 더 크다. 그럼 3천 개 책상만큼 이렇게 크면 이 극장은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의 배수는 상당히 큰 것이다. 그것의 체적, 그것의 범위를 말하면 대단히 크다.

그러나 이 우주, 그것은 다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간단한 개념일 뿐이다. 이러한 우주, 그들도 한 개 입자로 본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확실히 한 개 입자다. 게다가 그것은 또

나하면 당신의 사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면, 인류의 언어로는 우주의 상황을 형용할 수 없다. 또 그런 언어도 없고, 그런 사유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높은 말은, 사람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당신들이 수련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제고해야만 비로소 자신이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법을 보고 있을 때 법이 당신을 점화하여 깨우쳐 줄 수 있다.

왜 이 법이 그렇게 큰 작용을 할 수 있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높은 이치를 알게 할 수 있는가?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책 한 권, 곧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속인 중의 책 한 권은, 종이 몇 장을 한데 합쳐 놓아 흰 종이에 검은 글자일 뿐, 그것은 아무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인류가 알고 있는 도리를 말해 낼 수 있는바, 다만 이럴 뿐이다. 만약 이 『轉法輪(전법륜)』의 배후에 그의 내포가 없다면 역시 다만 이럴 뿐이다. 왜 당신들이 한 번 또 한 번씩 『轉法輪(전법륜)』을 보면 대단히 높고 대단히 높은 부동한 경지중의 그런 이치를 보아내고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매한 글자 뒤에 모두 무수한 층층첩첩 불(佛)·도(道)·신(神)이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있는지 헤아릴 수 없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리 높이 수련한다 해도, 당신이 아무리 높이 수련한다 해도, 장래에 당신이 개오해서도 당신은 변두리마저도 보아내지 못한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이 책대로 수련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높이 수련할 수 있겠는가를. 당신이 응당 제고해야 할 때 이 글자 배후의 불(佛)·도(道)·신(神)은 모두 보고 있다. 당신이 응당 그 어느 한 층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그 어느 한 층에 이르렀다면 그는 곧 이 한 글자, 혹은 이 한 줄 글자 배후의 진정한 내포를 당신에게 점화해 주어 당신은 활연히 명백해진다. 실제상 당신이 총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의식적으로 당신을 점화하여 깨우쳐 주었기에 당신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속에는 엄격한 요구가 있다. 당신이 그 경지로 수련되지 못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 층의 이치를 알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이 층의 이치를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이 경지에 있다.

우리 많은 수련생이 수련 중에서 늘 자신이 표면상에서 제고되는 것이 늦다고 느끼며 수시로 좋지 못한 사상과 심태(心態)가 반영되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조급해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오늘날의 수련형식은 과거의 모든 수련형식과 다 같지 않으면서 또 같기도 하다.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강의하지만, 그는 우주 전반의 법이며, 우주의 모든 동일하지 않은 층차, 동일하지 않은 경지, 동일하지 않은 단원세계 중생들의 동일하지 않은 층차의 법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을 말한 김에, 나는 다시 의미를 넓혀 또 다른 각도에서 공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방금 사람은 사람마다 온 공간이 다르고, 온 층차도 다르다고 말했는데, 말한 김에 이 우주의 구조를 말하겠다. 내 말은, 우리 이 지구 그것은 거의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와 같은 이러한 구체(球體)는 다른 곳에 극히 소량 존재한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이곳만은 중심에 위치한다. 그런데, 중심위치 그것은 곧 그것의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우주의 개념에서 말하지 않았다.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인 속인사회에서 속인의 지식을 배울 때, 중심은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모두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주의 개념 가운데서 지구 이 중심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우주는 둥글어서 우주 중의 각종 생명이 모두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떨어지는가? 우주는 둥근 것이기에, 이 왼쪽이 위라면 이 밑도 역시 위가 아닌가? 이 오른쪽이 위라면(손동작을 하심) 이 뒤도 위이고, 이 앞쪽 역시 위이다. 때문에 그것의 좋지 못한 것은 곧 아래로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지는가? 곧바로

려고 한다. 특히 우리 어떤 백인제자, 또 기타 민족의 제자 여러분에게 나는 한 가지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 대법을 수련함에 아주 많은 사람이 어떤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수련생 사이에서 그가 수련해 낸 신체 중 많이는 다 불가의 것이 아님을 발견한다. 그중에는 도가의 것도 있고, 신(神)의 것도 있으며, 백인 그 천국의 그런 신의 형상과 같은 신체도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어느 한 문은 좋고 어느 한 문은 나쁘다는, 그것은 당신이 속인의 관념에서 인식한 것인데, 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왜 우리 제자 중에는 부동한 세계의 그런 신체 형상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당신들이 부동한 곳에서 와, 부동한 인종으로 지상에 전생(轉生)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고층차에서 내려온 생명이라면, 본질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반드시 당신 자신의 원래 세계로 되돌아갈 것을 원한다. 당신이 지금, 나는 사부님의 세계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람의 사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당신들 당초의 그 소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지, 당신의 지금 사람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부 법에 동화함으로써 다시 당신들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이 법은, 비록 불가에 기점을 두고 이 법을

그 어떤 소법(小法), 소도(小道)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며, 같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법이 다만 우리가 오늘 전하는 이 우주대법 중에서 가장 낮고 국부적인 일부 수련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대법을 전하고 있는바 그의 위력에서나, 우리가 걷는 길에서나, 사람을 제도하는 방식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럼 이 법, 그가 이렇게 큰 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방금 책의 배후에는 그의 그렇게 큰 내포가 있기 때문임을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그 불(佛)·도(道)·신(神), 그는 무슨 가짜가 아니라 그는 진짜 불(佛)·도(道)·신(神)이며 그는 바로 이 법 중에서 체현되어 나온 것이다. 그는 그렇게 큰 위력이 있다. 당신이 보면 그는 글자 배후에 있지만 그가 커지려고 하면 끝없이 커진다. 그러나 그는 곧 이것을 책임지며 그는 바로 법의 한 체현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과거의 모든 법, 모든 수련형식은 다만 우주의 홍대(洪大)한 법 중의 아주 낮은 층차의 그런 몇 가지 형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것이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이 우주의 일정한 층차 중의 구조를 말하겠다.

우리, 먼저 법을 배우는 중요성을 말해 보자. 다시 말해서 법을 배우면 당신으로 하여금 제고되게 할 수 있다. 법의 배후에 내포가 있기 때문이다. 왜 다른 책은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아무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그 자신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그런 좋지 못한 종교의 책, 물론 내가 가리키는 것은 사교(邪教), 좋지 못한 종교의 책과 좋지 못한 기공 책으로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의 글자 배후에도 일부 것이 있고 또 그것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처가 아니고 도(道)도 아니며 신(神)도 아닌, 모두 부체(附體), 귀혼(鬼魂) 등등 그런 난잡한 것들이다. 사람의 신체는 곧 옷과 같고 사람의 사상은 곧 모자와 같아서, 누가 입고 누가 쓰면 곧 그 사람이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은 바로 이런 정도로 나약해서 누구나 다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사람을 교란할 수 있다. 사람이 가련하지 않는가? 가련한들 또 어찌하겠는가. 이는 사람 자신이 여기까지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 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 법을 배우는 사람은 사실 모두 쉽지 않다. 당신에게는 각종 교란과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서, 법을 배우려고 하기만 하면 곧 사업이 바쁘다든가 시

분은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외국어 판『轉法輪(전법륜)』이 일으키는 작용은 중국어 판이 일으키는 작용과 완전히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외국어로 번역하는, 각 국의 문자로 번역하는 수련생은 늘 서로 간에 쟁론하곤 한다. 그는, 이러한 뜻이 있는데 당신은 넣지 않았단가, 그는 저러한 뜻이 있는데 당신은 넣지 않았단가,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바르지 않다, 저 단어를 번역한 것이 틀렸단가, 흔히 모두 이렇게 논쟁하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이 틀렸는가, 틀리지 않았는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들은 또한 틀렸다. 왜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당신이 말한 그 함의는 확실히 당신이 본 것으로서 그것은 속인을 초월한 것이지만 백지 위에 남겨놓은 검은 글자는 속인의 것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번역을 할 때 다만 최대한도로 속인의 이 경지중의 단어, 원 뜻에 부합되게 하면 된다. 그 배후의 내포, 당신이 볼 수 있는 이치, 그것은 배후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번역 중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이다.

우리 수련생이 끊임없이 제고됨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똑똑히 말해주

볼 기회가 없게 하며, 당신에게 더는 대법 책과 접촉할 기회를 없게 한다. 이것이 곧, 왜 어떤 사람들이 책을 좀 보고 배울 기회를 찾는 것이 그리 용이치 않은가 하는 원인이다. 때문에 일단 이 책을 보려면 첫 번에 꼭 끝까지 보아야 하며 단숨에 끝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이 한 번에 다 보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좋지 않은 관념이, 당신의 사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상 부서졌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다시 법을 배울 때 이 면의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수련생, 특히 노수련생은 반드시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배우라고 할 때(그가 보려한다면) 그에게 한 번에 끝까지 보라고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첫 번에 끝까지 보지 않고 다시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다시 그에게 책을 보라고 하면 그는 즉시 말할 것이다. 나는 시간이 없어 조금밖에 보지 못했다고. 사실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다. 나는 사람의 신체는 마치 옷과 같아 누가 입으면 곧 누구이고, 이 사상은 마치 모자와 같아 누가 쓰면 곧 누구라고 말했다. 그가 입으로, 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 한마디 말은 업력이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에게 일을 많이 찾아주어 그로 하여금 책 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서 쉽게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여러

간이 모자란다고 하는 등등이다. 당신이 느끼건대 그것은 마치 일종 자연현상인 듯하지만, 실은 모두 여러 면의 원인이 당신을 교란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법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의 사상은 아마 그가 아닐 것이며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밖에 그런 좋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을 조종하여 하게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도 제도할 수 없다. 그럼 기왕 이 사람이 그가 아니라면 이 사람을 그래도 제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상이 있음으로 인해 이용당했기 때문에 직접 대법을 파괴하는 것을 제도할 수는 없다. 또 나쁘기 그지없고 이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비록 나쁜 것의 조종에 의해 한 말 이거나 일일지라도 그 자신이 이미 자신을 주재(主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은 곧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명백하고도 명백하게 수련하게 하는데, 당신이 명백하지도 못하고 명석하지도 못하면 당신은 외래의식의 통제를 자초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이 법을 어찌 나쁜 것으로 하여금 통제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에게는 줄 수 없다.

우리들은 수련 중에 많고 많은 곤란을 만나게 된다. 나는 어떤 때 여러분이 수련하면서 많고 많은 고생을 겪는 것을

보는데, 나 역시 매우 괴롭다! 나는 어떤 때 생각한다. 우리 어떤 수련생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 그는 나의 사진을 마주 하고서 가엾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나에게 다시 그를 도와 난을 없애주고 해탈시켜 달라며 빌고 있는 것을.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가? 내가 이 난을 당신한테서 물리쳐주면 당신은 제고할 기회가 없어진다. 어떤 난도 다 없이 평온하고도 평온하다면 당신이 그렇게 높은 경지로 승화될 수 있겠는가? 이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이 모두 알듯이 사람은 생생세세 모두 매우 많은 업을 빚는다. 마치 예수가 말한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빚진 이러한 업, 이러한 죄를 갚지 않고, 당신이 나는 천국에 올라가야겠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툭 툭 털고 이런 것들을 모두 던져버린다고 곧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것이 되겠는가? 절대 안 된다.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진 빚은 자신이 갚고 이런 업력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업을 없애는 동시에 당신의 心性(심성)도 제고되어 올라와 그만큼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 경지로 승화될 수 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경지로 승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법(法)이다.

수련 중에서 당신은 허다한 시달림(魔難)에 부딪힐 것이다. 오로지 여러분이 참답게 법을 배우면 어떠한 난이든지

일이 아니다. 당신 자신이 잘못되어 있어 이 우주특성으로 부터 빛나가 있기 때문이며, 주위의 일체가 당신과 모두 조화되지 않음을 발견하는데, 바로 이러한 관계이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조화롭게 하면 일체가 다 순조롭게 된다. 바로 이리하다.

법을 배우는 중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어떤 수련생이 법을 배우는데 당신이 그가 정진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니 그도 책을 보았고, 당신이 그가 정진한다고 말하자니 그는 아직 책 한 권마저 다 보지 못했으며 『轉法輪(전법륜)』은 보지도 못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일을 가벼이 보지 말라. 특히 신 수련생은, 당신이 만약 첫 번째 이 책을 완전히 볼 수 없으면 당신은 이후부터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설령 당신에게 시간이 있다 해도 당신은 또 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매 한 사람에게는 모두 사상업력이 있고, 이 사상업력은 모두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이 대법을 배워 이렇게 바르게 하고, 이렇게 잘하며, 그것을 없애버리려 하자, 업력 그것 자신이 겁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더 배우지도 더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중도에서 이 책을 놓고 보지 않으면 그 사상업력이 곧 당신을 몰아붙여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책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당신이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나의 한마디 말을 기억하라. 당신이 정말로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면 당신이 부딪히는 그 어떤 일, 번거로운 일, 당신 마음속으로 불쾌하게 여기는 일은, 표면상 당신이 옳든 그르든 모두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이 이런 문제에서 그 동기를 찾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만약 수련하는 사람이 단지 표면상으로만 내려놓고 내심 속으로는 아직도 지닌 채, 한 가지 것을 고수하면서, 당신 자신의 그 가장 본질적인 이익을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고수하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바 그것은 가짜 수련이다! 당신 자신의 내심을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한발자국도 제고할 수 없는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오로지 당신이 진정하게 내심에서 제고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하게 제고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어떤 일에 부딪히거나 번거로운 일, 내키지 않는 일 혹은 누구와 충돌이 발생했을 때, 꼭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찾는다면 당신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과거 기공수련을 열심히 할 때, 자기 몸의 에너지장이 외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당신은 넘길 수 있으며, 당신이 오로지 참답게 법을 배우면 그 어떤 풀기 어려운 마음속의 매듭, 넘기지 못하는 것도 모두 법 중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부의 법, 그는 어떻게 사람이 되고, 어떻게 천인(天人)이 되는가를 포함하고 있다. 또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불(佛)·도(道)·신(神)이 되고 더욱 높은 경지중의 신이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가 당신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그가 당신의 사상을 열지 못하겠는가? 그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다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장기간 인류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양성한 각종 관념, 그것을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동(不同)한 영역에 조예가 있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 성과를 끌어안고 놓지 않는다. 당신은 속인 중에서 배운 그러한 소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데, 흔히 이러한 것이 모두 일부분 사람을 저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많고 많은 사람에게는 속인사회 중에서 양성한 각종 습관이나 세력, 혹은 사람이 되는 그런 방식, 사람이 됨에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가장 침예하고, 건드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당신이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그것은 즉시 거절하며 차라리 법을 배우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다.

배우는가, 배우지 않는가 하는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을 뿐, 어떤 사람이든지 억지로 가서 배우게 할 수 없다.

매 사람마다 법을 배우는 데는 모두 장애가 있는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하겠다. 지식인이 법을 배우는 데는 현대과학의 장애가 있다. 나는 과학에 부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합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 심한 장애를 준다. 내가 설법할 때 왜 현재의 과학에 결부시켜 강의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의 그 껍질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인데, 당신이 법을 얻는 데 장애가 되는 그 층의 껍질을 깨트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각종 종교의 영향을 받아 그의 종교 관념에 부합되면 그는 좋다고 하며 와서 배우고, 부합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제도하기 위해, 당신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기 위해, 나 역시 종교 중의 것을 말하고, 그것이 파괴되는 과정과 형식을 말했다. 심지어 우리는 평범한 한 사람의 속인이고, 당신은 속인사회 중에서 당신의 일이 있고, 당신의 일을 놓을 수 없어 하기에, 나도 이 법을 최대한도로 속인의 수련에 부합되게 말했다. 실질상 내가 여러분에게 양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당신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타나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로 투덜투덜 불평을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곧 속인 중에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모두 법 중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며, 자신의 내심을 보고 내가 어디에서 틀리고 있는가? 오늘 갑자기 발생한 이 문제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자세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번거로움에 부딪혔을 때 진정하게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매 시기마다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많고 많은 가지 않은 시기마다 모두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원인을 찾았을 때, 당신이 그것을 정시하며 그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 일이 즉시 변하고 모순도 없어짐을 발견할 것이고, 상대방이 어찌된 까닭인지 갑자기 당신과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모순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인 당신에게는 그 어떤 우연한 기회가 존재하지 않고, 또 당신에게 그 어떤 우연한 것이 있음으로 해서 당신의 수련 이 한 갈래 길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당신이,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겨, 자신의 어디에 잘못이 있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을

음이 긴장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본래 아주 고달픈 것인데, 당신의 마음이 더욱 고달파지면 곧 당신으로 하여금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당신의 신체는 피로하거나, 노쇠하거나, 나빠지거나 하여 속인처럼 많은 질병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그것을 내려놓으면 좀 가난해도 아주 평온해지는데, 실제로 대법을 배운다 하여 가난해질 수 없으며 삶이 오히려 매우 유쾌할 것이다. 내가 보건대 그렇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만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수련하는데 여러분이 모두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건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다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 관계를 바로잡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을 배우는 것이 곧 복이다. 속인마음을 없앤 후 대법은 제자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큰 사장이 되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우리가 법을 배우는 가운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늘 밖에서 구하고 밖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우리 수련생 사이 혹은 책임자 사이에 무슨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면 서로들 네가 옳네, 그가 틀렸네, 하며 다툼이 일어나 일종 긴장상태를 조성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대법제자에게 이런 상태가 나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수련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많고 많은 상황이 있다. 때 사람마다 모두 장애가 있고, 모두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 관념이 있거나 심지어 더욱 많다. 사람의 그 어떤 관념도 모두 장애이다. 나는 인류사회가 오늘까지 발전해 오면서 그것이 나타낸 휘황을 반대하지 않으며, 나는 또 인류가 오늘까지 발전해 오면서 인류사회에서 쌓아놓은 경험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수련자인 당신들은 반드시 사상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보통적인 속인, 그들은 이 휘황 속에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은 사람의 관념 속에 생존할 수 있으나, 수련하는 사람인 당신들로서는 이런 후천적인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즉 내가 말한 이 이치는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되어 수련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속인 중에서 생활하기에 당신은 속인과 같게 사업하고, 학습할 수 있지만, 당신은 사람의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도 당신에게 사람의 관념을 내려놓고, 물질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마치 화상(和尚)처럼, 마치 수도사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 중에서 수련하게 하였으므로, 당신은 곧 속인사회의 상태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이다.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을 내

려놓지 못하는데, 당신이 그 마음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무엇도 잃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대법을 배우는 자체가 곧 복을 받은 것인데 어째서 잃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당신이 정말 무엇을 잃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내려놓지 못해 조성된 그 마음에 불과한 것인데, 늘 당신의 그 마음을 시달리게 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제거하게 한다. 정말로 당신에게 위기가 나타났다면 이런 위기는 당신의 그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당신이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곧 맞선다. 맞설수록 당신의 처지, 당신의 생활 환경은 아마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정말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아마 일들이 즉시 전화(轉化)되어 오고, 사상이 단번에 홀가분해지며, 신체도 변화되어 온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되돌아보면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국 사람이 말한, “고난 속에 광명이 있다(柳暗花明又一村).”는 것처럼 갑자기 또 모두 좋은 일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이 다시 올 때, 당신은 당신에게 돈이 더욱 많아지고, 당신의 복이 더욱 커지며, 곤란이 다시 나타나도 당신은 속인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아주 담담하게 이 일체를 대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도리어 무엇이나 모두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러면 좋지 않은가? 당신이 꼭 그렇게 고통스럽게 뚫고 들어가서 돈과 사업, 욕망을 움켜잡고 놓지 못해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며, 또한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 실제로 사람이 놓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다. 사람이 수련한다고 해서 인류사회를, 인류사회의 상태를 잃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생존의 상태는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가지려하든지 갖지 않으려하든지 그것은 모두 여기에 있다. 다만 속인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자신의 삶이 매우 고달픈 뿐이다.

물론 사람 역시 아주 복잡한 것이다. 매 사람의 복의 크기는 그의 전세(前世), 대 전세(大前世), 나아가 더욱 오래고 오랜 부동(不同)한 생존시기와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이 대단한 사장임을 보고 내가 수련하면 곧 것처럼 이렇게 큰 사장으로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내려놓으면 것처럼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시 같지 않다. 마치 인류사회처럼 그것은 당신 자신이 지닌 것과 관계가 있다. 당신이 오늘 수련하면, 수련한 그만큼의 복이며, 당신이 수련하지 않아도 역시 그만큼의 복일 것이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차이는 당신의 마음이 가벼운가, 아니면 당신의 마